

회원사 동정

현대중공업

신지식인에 윤갑식 씨, 우수 신지식인에 손익출 씨 뽑혀

현대중공업 대형엔진설계부 윤갑식 씨(44세)와 해양사업기획부 손익출 씨(55세)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2003 신지식인 근로자 부문에서 각각 신지식인과 우수 신지식인으로 선정돼 12월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민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신지식인상은 지식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인간상 정립과 국민의식 변화를 구현하기 위해 근로자, 경영인, 교사 등 총 12개 분야의 우수 신지식인 가운데 3배 수를 뽑아 1차 광역 단계, 2차 분야별 중앙행정기관, 3차 행정자치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확정한다.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윤 씨는 지난 1983년부터 20여 년 동안 디젤엔진 설계 분야에서 꾸준한 개선 활동을 펼쳐 10만 마력 선박용 대형엔진 설계 혁신과 대형엔진 피스톤의 국산화 등을 실현했으며, 지금까지 5백억 원 이상의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에 기여해 국가 경쟁력을 높인 공로를 이 상을 받았다.

우수 신지식인으로 뽑힌 손 씨는 지난 1999년 산업자원부로부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 신규로 선발된 신지식인과는 별개로 이미 선발된 신지식인 가운데 활발한 활동으로 사회적 발전에 공헌한 2명에게 수여하는 2003년 우수 신지식인으로 뽑혔다.

손 씨는 끊임없는 학습과 탁월한 기술력으로 산업 현장에서 각종 공법을 개선해 사회적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94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품질명장을, 1998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유수호 및 국가발전에 노력한 참전증서를 받은 바 있어 일반인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3인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한편, 손 씨는 우수 신지식인 대통령 표창으로 받은 포상금 2백만 원과 그동안 모은 제안 상금 3백여 만 원을 지역 학교와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에게 성금으로 전달했다.

두산중공업

기술논문은행 개설

- 매년 '골든 페이퍼' 선정,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두산중공업은 12월 4일 직원들의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각종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술논문은행을 개설했다.

기술논문은행은 각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 그룹으로 구성된 기술논문 심사위

원회(Technical Paper Committee)가 매년 개인은 물론 부서 차원에서 연구, 작성한 논문 가운데 활용 가능성이 높은 논문 10편을 선정해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시스템이다.

심사 대상 기술논문은 영업, 제작 분야에 기술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개발 논문에서부터 학술적 개념의 기초 이론까지 폭넓게 적용되며, 선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검토 및 책자 제작, 영문 번역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두산중공업은 채택된 논문들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나 관련 학술대회에 참가해 발표하고, 매년 발간되는 『두산 테크니컬 저널(Doosan Technical Journal)』에 게재해 국내·외 관련 업체 및 기관에 배포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술보호 자료는 지적재산팀의 특별 관리를 통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두산중공업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정자에 대해서는 승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매년 '골든 페이퍼(Golden Paper)'를 선정해 포상 차원에서 부부가 함께 해외 학술대회 및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두산중공업 변화관리담당 이윤영 전무는 "기술논문은행은 실용적 논문뿐만 아니라 기계분야의 기초 이론까지 선정해 관리함으로써 국내 플랜트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 체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플랜트 분야의 기술 보고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효성

'올해의 효성인상'에 김세중 씨 등 6명 선정

효성은 12월 18일 본사 대강당에서 '올해의 효성인상' 시상식을 갖고 사내 스파덱스 퍼포먼스유닛(PU)의 김세중 과장 등 6명에게 각각 상패와 상금 1,500만원을 수여했다.

올해의 효성인으로 선정된 직원은 스파덱스PU의 김세중·송병수 과장, 전력PU의 박주훈·김영기 과장, 건설PU의 이광용 부장, 대만지점의 이병헌 부장이다.

조석래 회장은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의 공적을 치하하고 "시장 환경이 어려울수록 품질의 우수 확보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의 효성인상은 각 부문에서 뛰어난 업적과 성과를 거둔 직원

들을 선정, 해마다 연말에 시상하는 제도로, 지난 1990년 처음 시행되어 올해로 14회를 맞았다.

한국남부발전

ISO 9001/14001 통합 인증 획득

- 전력회사 최초로 전사업소 일괄 국제품질·환경인증 동시 취득

한국남부발전은 12월 16일 한국품질인증센터로부터 본사를 비롯한 7개 전 사업장에 대하여 ISO 9001/14001(국제품질·환경규격) 통합 인증을 받았다.

ISO 9001/14001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환경경영에 대한 국제 규격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실현 체계를 한국품질인증센터가 평가하여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전 세계적으로 품질 및 환경에 대한 제약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전력생산과 공급, 특히 발전설비 건설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발전회사가 ISO 9001/14001 통합 인증을 받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인데, 이번에 한국남부발전이 품질·환경부문에서 통합 인증을 받음으로써 국내 발전산업의 경쟁력을 대내·외에 입증하게 되었다.

한국남부발전은 그동안 품질경영과 환경중시 경영을 주요 경영 목표로 하여 기술 우위를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품질 규격과 환경 규격에 대한 국제인증 취득으로 국내 발전부문의 국제적 품질·환경경영 시스템 정착을 앞당기고, 고객 중심의 전력 경쟁시장을 선도하고자 제반 경영 역량을 결집해 왔다.

한편, 한국남부발전은 이번 통합 인증 취득으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해외 전력시장 진출사업에 큰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일본 R&I사로부터 A- 등급 획득

한국수력원자력은 12월 22일 일본 최대 신용평가사인 Rating & Investment Information, Inc.(R&I) 사로부터 발전회사 최초로 국가 신용등급과 동일한 'A-' 신용등급을 획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에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S&P 및 Moody's사에 이어 일본 R&I사로부터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신용

회원사 동정

등급을 부여받음으로써 미국 및 유럽시장에 이어 향후 일본시장에서도 해외채권 발행을 통하여 장기 저리의 발전소 건설 투자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자산규모 20조원의 국내 최대 발전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수력 및 원자력 발전을 통하여 우리나라 전력 수요량의 40%를 공급하고 있으며, 한전에서 분리된 2001년에 5,616억 원, 2002년에 8,20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고, 2003년에는 약 8,000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R&S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우수한 발전설비 및 운영능력, 높은 원가 경쟁력, 향후 성장 가능성, 기저 발전을 통한 안정된 자금 흐름과 수익성을 통한 건전한 재무구조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국남동발전

윤리경영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

한국남동발전이 산업자원부 산하 24개 공기업 중 작업장 부문에서 윤리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산업자원부와 산업정책연구원(IPS)은 선진국 및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윤리경영의 실천 체계 강화에 대비하여, 한국의 기업문화에 적합한 윤리경영지표(KoBEX)를 개발하고, 2003년 8월부터 3개월간 주요 민간기업과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수준을 조사해 한국남동발전을 윤리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공기업의 부문별 주요 평가 항목은 경영진의 윤리적 리더십 및 숭선수범 정도, 작업장, 지배구조, 협력업체, 고객, 지역사회 등 6개 항목인데, 한국남동발전은 고용평등, 인적자원 개발, 안전보건, 윤리경영 제도 등을 강화하여 종업원과 긍정적인 관계를 설정한 정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윤리경영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평가 기준으로 적용된 윤리경영지표(KoBEX)는 종업원, 고객, 협력업체 등 기업의 주요 이해 관계자별 윤리적 성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수차례의 평가회의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작성됐다.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이 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 및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국내 기업들의 윤리경영 조사 결과를 비교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윤리경영의 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국동서발전

2003년 대한민국 기업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한국동서발전의 사보 『동서마당』이 2003년 대한민국 기업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전자사보 부문 기획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관광부, 한국방송공사 등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기업커뮤니케이션 대상은 국내에서 발행되는 인쇄 및 전자사보 등을 대상으로, 기업문화 발전과 사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올해로 13회째를 맞고 있다.

올해에는 사내보 168종, 사외보(혼합보) 118종, 방송·사사·사진·개인 취재 부문 126종 등 총 412종이 응모하였으며, 『동서마당』은 전자사보 부문에서 기획 대상을 차지했다.

『동서마당』은 2002년 11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발전회사 가운데 최초로 웹에서 발간하는 순수한 전자사보로 창간했으며, 그동안 조직의 화합과 회사의 첨단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LG산전 2004년도 정기 임원인사 단행

LG산전은 12월 23일 이사회를 열고 2004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구자홍 전 LG전자 회장을 LG산전 회장으로 신규 선임하였으며, 전력시스템사업부장 김춘식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키고, 상무 1명과 이사 2명을 신규 선임했다.

구자홍 회장은 2004년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면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추대될 예정이며, 현 LG산전 김정만 사장은 대표이사 겸 CEO로 유임된다.

LG산전은 이번 인사로 이사회 의장과 CEO의 역할 분담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승진 : 전무 김춘식

▶신규 선임 : 상무 신영준, 이사 방효성, 이사 김원일

< p49에서 계속... >

●조명

조명등은 주기적으로 청소하면 밝게 사용할 수 있다. 조명스위치는 개별 스위치 및 다임 스위치를 부착하여 필요한 부분만 사용토록 한다. 백열등은 전구형 형광램프로 교체하면 70~80%의 절전이 되고 수명도 연장된다. 형광등의 전자식 안정기는 자기식 안정기보다 20~30%의 절전 효과가 있다.

●에어컨

냉방시 실내온도와 실외온도 차이는 5C 이내로 해야 하며, 지나친 냉방은 여름감기, 두통 등의 냉방병으로 건강을 해치게 된다. 에어컨은 강·중·약 사용 강도에 따라 단계마다 30%씩의 절전 효과가 있으며, 강 대신 약으로 강도를 낮추고 선풍기를 함께 가동하면 종전 사용량의 60%를 절감할 수 있다. 에어컨은 선풍기에 비해 약 30배의 전력이 더 소모된다.

●전기히터

주택용 고객의 경우 누진요금 체계로 인해 전기히터 사용시 고율의 전기요금 단가가 적용된다. 방의 용도에 맞추어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거실 : 17~19C, 침실 : 14~16C가 적정 온도). 커튼을 치면 방의 온도가 3C 정도 올라간다. 열손실이 많은 유리창, 벽, 천정 등은 단열한다. 창문이나 문의 틈새는 테이프 등으로 막아 되도록 통기를 적게 한다.

●전기장판

주택용 고객의 경우 누진요금 체계로 인해 전기장판 사용시 고율의 전기요금 단가가 적용된다. 온도조절기를 잘 맞추어 과열되지 않도록 사용하고, 장판 밑에 두꺼운 요를 깔면 보온이 잘 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플러그를 빼 놓는다.

●세탁기

세탁물은 섬유유증류, 유색물과 흰색 등으로 분류하여 세탁 분량만큼 세탁한다. 행구기 전에 반드시 탈수를 하고 탈수 시간은 3분 이내가 적당하다.

* 자료 출처 : www.kepco.co.kr/museum